

새정치, 내년 총선 공천권 싸고 '일촉즉발'

■ 문재인 대표 '정면돌파' 메시지 공개 파문

쇄신안 핵심 '현 지도부 권한 포기' 입장 변화

비노계 중심 거센 반발...당 내분 악화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선 패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의 '정면돌파'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내분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다.

문 대표는 14일 오전 공식 일정을 비워두고서 쇄신안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빠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문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문 대표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당 쇄신안 등 당 내분 상황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내 인사들을 만나며 의견을 들은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을 들기만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천 혁신'과 '정무직 당직 사퇴' 등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자리에서는 오는 18일 열리는 정부 주치의 35주년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15일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재논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메시지 내용이 알려지기 전까지만해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 문 대표가 제시할 쇄신안의 핵심은 총선 공천권에서 현 지도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비노진영은 당의 모든 운영 과정에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은 공천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현재 공천혁신추진단을 대신할 별도기구를 설치, 공천제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비노진영 유성엽 의원은 '공천혁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기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었다.

지난달 공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선거인단 구성비율 '국민 60%, 권리당원 40%' 원칙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노 측은 기존 '50% 대 50%' 안에서 국민 참여 비율이 상향된 것이 친노의 이해관계

를 대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공천 개혁에 대한 문 대표의 고심이 이어지지만, 친노진영과 비노진영의 속마음은 판판이어서 수습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친노그룹에서는 비노진영이 패권주의 비판을 앞세워 공천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고 있지만 비노그룹은 웬만한 혁신안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패권주의가 청산되지 않을 거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서 14일 오후 문 대표의 메시지가 흘러나오자 상황은 악화됐다. 애초 예상과는 달리 정면돌파 쪽으로 기대를 접은 것으로 전해지자 비노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 날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 도울 일이 있다면 돕지 않을까 생각"

정세균 상임고문, '손학규 등판론' 관련 언급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14일 4·29 재보선 패배와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의 와중에서 제기되고 있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등판론'에 대해 "손 전 고문은 새정치연합이 국민 신뢰를 받고 제 역할을 하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돕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총지명입니다'에 출연, "당내 갈등이나 정쟁의 결과로 손 전 고문이 주목받는 것은 본인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손 전 고문은 정치를 오래 하고 정치적 자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에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정치적 지혜를 빌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손 전 고문이 정계복귀할 것으로 보는냐는 질문에 "손 전 고문이 판단할 문

제이고, 국민의 관심이 어떠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범주류로 분류되는 정 고문은 당의 내분 상황을 '퇴행적 갈등'으로 규정하며 "지금은 우리 당내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한발짝씩 아니면 반발짝씩이라고 서로 물러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도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신뢰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당장 직을 그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고문은 또 '호남시장론'과 관련, "호남 지역주의를 부추겨 시장을 도모하고 있다면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라며 "그러나 호남시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책임인 만큼, 호남정신을 제대로 계승해 대안정당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인 구 민주당 의원들 모임인 '민주헌정포럼' 오찬에서 정대철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현, 천용택, 김봉호, 이철, 정한웅 등의 전 의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동철, 오늘 광주송정역 현안해결 관계기관 대책회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은 15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송정역 현안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종합대책회의에는 광주시 문인 행정부시장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경찰청·광산구청·철도시설공단·코레일 관계자와 시·구의원들이 참석, 호남선 KTX 개통 이후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광주송정역은 지난 4월2일 개통 이후 40여일이 지나면서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이용객 급증으로 주차장 등의 시설 부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변교통

혼잡, 대중교통 및 환승체계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관계기관들이 제시하는 대책이 미흡하고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회의를 하게 됐다"며 "이번 회의가 각 기관별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백의종군했는데 장수갑옷 다시 입겠나"

"당 정상 운영에도 최고위원직 복귀 없다" "집사광익" 강조

문재인 대표가 조만간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과 비노 진영을 대표하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주 의원의 복귀 여부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정상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문 대표가 친

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최고위원직 복귀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의원은 14일 최근의 입장에 대한 자료를 통해 "문 대표의 어제 제갈량의 '읍참마속'을 말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 한다'는 뜻의 '집사광익'도 강조했다"며 "패권정치 병폐를 버리고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움을 받을까 걱정돼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면 큰 손실을 입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옥을 얻는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에는 이 같은 열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패권정치라는 병폐를 버리고 '당심과 민심'이라는 주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고위원직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백의종군'을 한 사람"이라며 "이제와 장수의 갑옷을 다시 입는

다한 국민과 당원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당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 문 안인데 문 밖이든 자리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최고위원은 "우왕좌왕하는 당원과 국민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기에 한 말씀 드린다. '패권정치 청산'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당의 강령과 정강정책 속에 모두 나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공개, 공정, 공평 '3공' 원칙에도 해답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초선인 권은희 의원을(광주 광산을)을 내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원외인사가 주로 맡아왔지만, 지금은 현역 의원들과의 소통이 어는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인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호남 의원인 동시에 여성 의원으로서의 상징성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7·30 재보선 선거에서는 당시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를 노리던 광주 광산을에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로부터 전격적으로 전락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7659-8900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

5.18 광주민중항쟁 35주년 기념예배 및 심포지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80년 5월 광주는 민주, 인권, 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족의 소중한 가치로 세계 유산에 등록된 역사적 자산입니다.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는 항쟁 35주년을 맞아 5.18의 참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념예배와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5월 17일(주일) 오후 2시
- 장 소 : 광주한빛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703-4)
- 주 제 : "기억, 신앙, 평화"
- 순 서 : 1부 기념예배, 2부 심포지엄
- 강 사 : 정권모 목사, 최성 고양시장, 김양래성임사(5.18 기념재단), 한규무 교수(광주대)
- 문 의 : 서기 / 김성준목사 010-4661-6881
- 주 회 :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 한국기독교장로회광주노회/ 광주남노회, 대한기독교장로회 광주지방회, 기독교하나님의 성회 광주지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광주노회/ 광주동노회 인권위원회, 대한성공회 광주지방회, 광주YMCA, 광주YWCA, 광주CBS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폭은총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 학습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